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

-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Family Counselors

- Focused on Components -

노미화(Mi Wha Noh), 최연실(Youn Shil Choi)*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which components make up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family counselors. In-depth interviews with 15 family counselors were conducted for research purposes. As a result, 176 concepts, 47 subcategories, and 18 categories were deducted for the study. A total of 9 components were confirmed in personal, occupational, and social environment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efining oneself as a family counselor, placing significance and value as a family counselor, and engaging in a sophisticated relationship were deducted in the personal area. Second, self-theorizing family counseling, occupational responsibility, and professionalism as a family counselor were deducted in the occupational area. Last, social demand and expectation, culture of counseling community, and assessing the reality of the family counseling occupation and its future prospects were deducted in the social environment area. This research, despite its several limitations, holds significance on conceptualizing professional identity and identifying the components of professional identity. Furthermore, constitutive components of family counselors' professional identity that were deducted through research holds significance on providing conceptu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theory of the development process of family counselors' professional identity, and can be utilized as a reference for providing implications for education and supervision of family counselors.

▲주제어(Key words): 가족상담사 (family counselor), 전문직 정체성 (professional identity), 구성요소 (component), 질적 연구 (qualitative study)

I. 서론

오늘날 상담은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과 가족 혹은 집단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상담을 받은 집단은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긍정적 문제해결 결과를 얻으며, 이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Wampold,

2001). 하지만 상담을 받은 집단 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며, 내담자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때 그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니다(Crits-Cristoph & Mintz, 1991; Henry & Strupp, 1994). 이와 같은 상담 결과는 상담자의 상담이론이나 상담기법보다는 상담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담이 타인을 돕는 영역이므로 상담에도 역시 관계의 복잡성이 개

• 본 연구는 주저자의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Youn Shil Choi, Professor,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20 Hongjimoongil, Chongrogu, Seoul 110-743, Korea, Tel: +82-2-2287-5317, E-mail: yschoi@smu.ac.kr

입되며, 상담자의 영향력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 상담 과정 및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Orlinsky, Rønnestad, & Willutzki, 2003). 그렇다면 이러한 상담자의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상담분야가 전문직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직은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을 소유하고, 일의 내용이나 조건에 관해 외적 간섭 및 통제를 받지 않는 특성으로 인해 산업사회의 노동력 구성에 있어 특수한 위치를 갖는 직업 범주(오현석, 성은모, 2010)이다. 따라서 교사, 변호사, 의사 및 기타 전문직은 자격증과 전문적인 지식, 기술, 그리고 규범을 보유한다. 상담이 전문직화 되기 위해서는 상담을 담당하는 상담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고 상담자 교육내용과 방법이 전문화 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직으로서 사회에 인정받고 보호받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2014년 이후, 상담관련 4개 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한국기독교상담심리학회』, 『한국가족치료학회』)가 『전문상담진흥법』이라는 상담분야 전체를 관장하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초한다.

상담분야의 전문직화라는 흐름 속에서 국내·외의 많은 학자들은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확립과 전문직 정체성 발달(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2016; Granello & Young, 2011; 장유진, 2015)에 관심을 갖고 이를 강조해 왔다.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 상담사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와 같은 정신건강 전문가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상담자의 자격 및 교육, 훈련 과정은 어떠한지(Puglia, 2008)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이다. 또한 명확한 전문직 정체성을 갖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과 상담결과, 상담자의 직업 적응에도 영향을 미친다(Brott & Myers, 1999; Ponton & Duba, 2009). 따라서 상담분야가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조력 분야(helping professions)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며(Hanna & Bemak, 1997; Mellin, Hunt, & Nichols, 2011), 상담이 법제화되고 대중들에게 전문직으로서의 인지도를 획득하는 데도 중요한 과제이다(명대정, 2000).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을 규명하려는 시도는 상담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져 왔다(김민규, 2015; 김정숙, 유금란, 2010; 정지희, 2014; 조은희, 2015; 허찬, 문성호, 2014). 그러나 지금까지 상담분야의 전문직 정체성 연구는 상담분야가 공유하는 하나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확인하는 데 맞추어져 왔다(Reiner, Dobmeier, & Hernandez,

2013). 이러한 방향성은 상담분야의 전문직 정체성을 명료화하고 통일된 전문직 정체성을 갖기 위한 노력이었지만, 개인, 집단, 학교, 직업 상담 등 상담분야의 하위 전문 집단의 개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갖는다. 최근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개인상담과 더불어 가족상담, 사회복지 서비스, 교육 등 다차원적인 협조가 요구되고 있으며, 여러 직업의 공동 작업자들의 지식과 기술을 결합하여 내담자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공동 작업자들 사이에 뚜렷한 전문적인 정체성을 표현할 수 없다면 역할과 책임에 대한 혼란, 권력과 지위에 관한 충돌, 전문 직업인들 간의 협동의 효과를 위태롭게 하는 고정관념의 확산(King & Ross, 2003; Waxman, Weist, & Benson, 1999) 등이 발생될 수 있다.

한편, 개인과 가족의 문제해결과 예방, 그리고 건강할 가족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가족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족상담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포함한 대부분의 상담센터들은 훈련된 가족상담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나 개인상담 이론만을 훈련받은 상담사 혹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가족상담사들에게 부부 및 가족상담을 담당시키고 있다(조은숙, 김민정, 최연실, 2015). 이러한 현실은 가족상담사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상담사의 절대적인 수의 부족과 더불어 상담훈련을 받은 상담사라면 누구나 가족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즉 개인상담과 가족상담의 차별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기도 한다. 가족상담은 개인상담과는 달리 가족을 하나의 체계(system)로 보며, 그 체계 속의 상호 교류 양상에 개입함으로써 개인의 증상이나 행동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추구하는 치료적 접근법을 말한다(김유숙, 2002). 따라서 가족상담은 단기적이고,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며, 구체적이고 성취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며, 종결을 생각하고 치료를 설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가족상담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상담사는 일반상담과는 차별화되는 전문직으로서 가족상담사 역할이 요구된다. 가족상담이 전문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다수의 전문 가족상담사들이 지속적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서비스 구축, 그리고 법과 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족상담사들이 전문 가족상담사로서 성장·발달해가는 과정은 어떠하며, 가족상담사로서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것과 관련된 집중적이고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가족상담 영역에서 가족상담사에 대한

연구와 가족상담사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노미화, 최연실, 2015).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가족상담사들이 정의하는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개념과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본 연구 결과는 전문가가족상담사로 성장해 가는 데 필요한 교육과 훈련, 그리고 슈퍼비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가족상담사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상황에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개념 및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그 주제들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방법이 유용한 접근 방법으로 판단된다. 질적 연구는 복잡적이고 전체적인 그림을 구축하고, 언어를 분석하며, 정보 제공자들의 구체적인 시각들을 보고하고,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reswell,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가족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 가족상담사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하여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이루는 구성요소들을 추출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전문직 정체성 (professional identity)

전문직은 직업을 구성하는 하부단위로 일반적인 직업과는 달리, 장기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고, 높은 학문적 지식체계를 기반으로 전문적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사회적 권한과 사회적 지위를 갖는다(박종우, 1994). 따라서 전문직은 체계적인 지식과 사회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의 공공성, 서비스의 독점성, 전문직업적 활동을 할 때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율성, 사회적 권위, 제도화된 교육, 전문가 조직을 통한 전문직 문화, 자격증 제도 등과 같은 독특한 구성요소를 갖는다(Greenwood, 1980). 직업 정체성(occupational identity)이 전문직뿐만 아니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인 것에 비해, 전문직 정체성은 전문직 종사자들에만 초점을 맞춘 개념으로 직업 정체성의 하위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개념은 학자마다 다르다. 예컨대, '개인이 자신을 전문직 역할로 정의하는 것과 관련된 속성, 신념, 가치, 동기와 경험 등의 비교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집합'으로 보는 시각(Greenwood, 1957)도 있고, 다른 전문직과 구별되는 특성으로 전문직에 종

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전문 직업인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평가로 보는 시각(박종우, 1994)도 있다. 또는 전문가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태도를 통합하며, 전문가 공동체의 맥락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Gibson, Dollahide, & McCallum, 2010a; Gibson, Dollahide, & Moss, 2010b).

2.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상담자는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는 별도로 일관된 전문직 정체성을 갖는다(Gale & Austin, 2003; Gladding & Newsome, 2004; Remley & Herlihy, 2014).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상담자들의 전문적인 활동, 상담환경, 내담자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Schön, 1987)이나, 전문적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인지 틀'(Brott & Myers, 1999), 혹은 '전문적인 자기와 개인적인 자기(가치, 이론 및 기법 포함)의 통합'(Nugent & Jones, 2009) 등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한편, Auxier, Hughes와 Kline(2003)은 전문직 정체성을 역할, 권한, 개인의 윤리적 가치, 도덕 및 인식과 같은 전문적 자아가 혼합된 '치료적 자아'라 보기도 한다. 이러한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개인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동안 스스로 정의한 전문직 역할에 적응하는 과정이라 보인다(Ibarra, 1999). 즉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상담자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형성되기 시작하여 훈련과정을 거쳐 직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을 걸쳐 형성된다(Reid, Dahlgren, Petocz, & Dahlgren, 2008). 이렇게 볼 때,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어느 시점에서 확립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통해 계속해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며, 전문적인 영역에 국한된 개념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상 개인적인 삶에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인식까지 포함하는 통합된 개념(Moss, Gibson, & Dollahide, 2014)이다.

3. 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

그동안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개념과 그 구성요소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상담과 유사한 직업과 차별화하는 방법(Gale & Austin, 2003)이나, 예방, 건강, 발달이라는 핵심 가치의 고수(Gladding & Newsome, 2004)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Gibson 등(2010b)은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내적 영역과 대인관계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내적 영역은 개인의 특성과 상담에 대한 개

인적인 정의, 상담평가에 대한 변화, 그리고 반영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내적 영역이 상담과정을 통한 성찰과 내담자의 역량 강화에 대한 수용을 경험하면서 변화해 간다. 반면 대인관계 영역은 상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전문가 집단으로서 상담자 집단, 자격위원회, 그리고 공인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와 유사하게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상담자의 개인 영역과 집단 영역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Gale & Austin, 2003; Hawley & Calley, 2009). 개인 영역은 상담자가 자신과 자신의 역할, 직업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관련되며(Auxier et al., 2003; Lewis & Hatch, 2008), 집단 영역은 상담이 타인을 돕는 직업과 어떻게 구별되며, 상담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고유한 정체성은 무엇인가와 관련된다(Gale & Austin, 2003; Mellin et al., 2011). 일반적으로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은 자신의 일에 대한 가치, 능력 및 지식을 포함하며, 전문가들 사이의 소속감, 윤리·도덕적 책임과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포함한다(Brott & Myers, 1999; Gale & Austin, 2003).

전문직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서 전문역량과 전문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전문직 정체성은 직업에 대한 전문 지식과 지식을 보유하는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며(Nelson & Jackson, 2003), 직업 구성원이 된다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Emerson, 2010). 더불어 상담 경력, 윤리적 기준, 전문직 역할 및 기능, 전문 조직 및 전문 지식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증가시킨다. 다양한 환경 속에서 상담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도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상담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은 다른 정신건강 전문가와의 차이점을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상담 서비스의 내용과 기능을 정함으로써 상담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Remley & Herlihy, 2014). 개인적인 목표와 가치, 상담직의 특징과 가치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상담자는 그렇지 않은 상담자에 비하여 전문직 정체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동료, 멘토, 슈퍼바이저, 그리고 현장의 다른 전문가 및 네트워크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상담자의 사회화는 전문직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Gibson et al., 2010b). 특히, 슈퍼비전 경험과 대인 관계 및 상호 작용은 상담자를 직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전문성을 증진시키는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Bernard & Goodyear, 2013). 한편, 상담자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은 상담 현장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와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문직에 참여하기 위해 취하는 활동(상담학회 참여, 출판 및 발표, 전문 연구 및 저널 읽기, 자격증 유지 및 옹호 활동)은 전문직 정체

성의 또 다른 구성요소(Gale & Austin, 2003; Puglia, 2008)이기도 하다. 또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상담자는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상담자보다 역량과 자긍심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직업을 더 가치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Myers, Sweeney, & White, 200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의 구성 요소는 첫째, 직업에 대한 지식, 둘째, 직업에 대한 철학, 셋째, 전문 역량 및 전문성, 넷째, 직업과 자신에 대한 태도, 다섯째, 직업 참여행동, 여섯째, 다른 전문가와의 상호 작용(Woo, Storlie, & Baltrinic, 2016)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가족상담사에 대한 이해

가족상담은 체계이론(systems theory),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에 근거한다. 이는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이해한다는 것으로 가족문제의 원인을 특정 개인에 두지 않고, 개인의 특성 또한 가족체계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보는 관점을 취하는 것이다. 『미국결혼가족치료협회(AAMF)』는 가족상담사란 “심리치료와 가족체계이론 분야에서 훈련을 받은 전문가이자 결혼, 부부,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정신장애와 정서장애를 진단하고 치료할 자격을 갖는 전문가”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사들은 체계론적 사고에 기반한 다양한 가족치료 이론들과 치료기법들을 훈련받는다. 또한 가족 문제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치료자 본인을 개인적으로 자각하며,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성·권력·문화적 쟁점들에 대해 민감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전문적, 윤리적 이슈들을 숙지할 것을 요구받는다(Huber: 전영주에서 재인용, 2012).

국내 가족상담 연구는 특정 유형의 부부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치료와 그 효과에 관한 연구(곽정임, 서미아, 2015), 부부·가족 치료분야의 연구동향(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서진환, 2008), 교육훈련 현황(신혜중, 노치영, 김은영, 2005)과 자격제도(전영주, 최연실, 2005)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가족상담사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전영주, 최연실, 2005). 이와 같이 제한된 연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보면, 먼저 가족상담사의 배경과 바람직한 특성을 살펴보고 독일의 가족상담사와 비교한 연구(정문자, 1998)가 있다. 그 뒤를 이어, 가족상담 인력의 현황과 제도(이선훈, 신영화, 서진환, 2005; 전영주, 최연실, 2005), 가족치료사의 상담관련 전문성(김수지, 정문자, 2010), 훈련경험(전영주, 2012), 전문가가 되어가는 경험(황선민, 2013), 가족상담 경험(노미화, 최연실, 2015) 등을

다른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가족상담사,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발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전문직 정체성을 포함한 가족상담사에 대한 보다 폭 넓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해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및 구성요소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연구방향과 연구질문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비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계획 및 참여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구 주제와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마친 후, 본 연구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 참여자와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연구질문을 중심으로 가족상담에 입문하는 시점부터 현재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회고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방적인 질문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들의 심층면담 자료는 축어록으로 작성되어 비교검토에 사용되었으나, 내용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연구자의 관점을 초점화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에 따라 1~3회기 실시되었고, 시간은 회기 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심층면담 내용은 면담 후 곧바로 축어록으로 전사되어, 연구자의 메모, 기타 수집된 자료와 함께 자료분석으로 이어졌다.

자료분석은 연구 참여자와 1차 자료 검토를 거친 후, 질적 연구 경험자와 질적 연구 방법론 지도교수의 자문을 통해서 그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한 문장씩 분석해 나가는 줄 단위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주요한 개념들을 명명화하였다. 명명화된 개념들은 하위범주로 묶여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176개의 개념, 47개의 하위범주, 18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코딩자료와 원자료의 비교 및 검토과정을 수차례 반복한 후 개인 영역에서 3개, 직업 영역에서 3개, 사회환경 영역에서 3개 총 9개의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9개 영역은 가족상담사의 인식과 태도에 따라 재분류되었다. 비교집단 연구 참여자와 기타 본 연구 참여자와 비슷한 특징을 지닌 가족상담사들에게 연구결과를 묻거나 자문을 구하고 이를 근거로 결과 및 논의를 작성하였다.

2.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탐색하기 위한 본 연구는 준거적 선택(criterion-based selection)에 따라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는 전문직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풍부한 가족상담 경험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상담사로서, 가족상담 경력,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유무,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론적 표본 추출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15명의 가족상담사들이다. 이들 연구 참여자들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과 가족상담 관련 학회 1급, 2급 자격증 소지자로, 6~15년 이상의 상담경력을 갖추고 있었다. 성별은 여성 13명, 남성 2명이었으며, 30대가 1명, 40대가 5명, 50대가 8명, 60대가 1명으로 평균 연령은 51.1세였다. 최종학력은 석사 4명, 박사수로 및 박사가 11명이다. 이들의 근무 상태를 살펴보면, 개인상담소 및 상담기관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가족상담사가 7명, 비정규직 가족상담사가 8명이었다. 비교집단으로 활용된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상담사들로 성별은 남 1명, 여 2명이었으며, 연령분포의 경우 40대 1명, 50대 1명, 60대 1명이다. 이들은 연구 참여자 선정에서 제외하였던 개인상담 영역에서 상담을 하는 상담사들이다. 연구 참여자들의 기본 정보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기본 정보

번호	성별	연령	학력	상담 경력	자격	상담기관
1	여	35	박사	10	1급	정부기관
2	여	49	박사	13	1급	개인상담소
3	여	49	박사수료	10	1급	공공기관/비정규직
4	여	46	박사과정	7	2급	공공기관/비정규직
5	여	47	박사과정	7	1급	공공기관/비정규직
6	남	48	박사수료	9	1급	개인상담소
7	여	50	석사	7	1급	개인상담소
8	여	53	박사수료	14	1급	개인상담소
9	여	56	석사	14	2급	공공기관/비정규직
10	여	53	박사	15	1급	개인상담소
11	여	58	박사과정	8	1급	공공기관/비정규직
12	여	56	박사수료	13	1급	개인상담소
13	여	53	석사	16	1급	공공기관/비정규직
14	남	61	박사수료	6	2급	공공기관/비정규직
15	여	53	석사	11	2급	공공기관/비정규직
비교1	남	49	박사수료	13	중독상담사	정부기관
비교2	여	50	석사	10	정신분석	개인상담소
비교3	여	63	석사	15	정신분석	학교

질적 연구에서 분석은 연구자와 자료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Strauss & Corbin, 1998), 연구자는 중요한 분석도구가 된다. 본 연구를 주도한 연구자는 부부·가족상담 전문가 I 급(「한국가족치료학회」)으로서, 2008년부터 00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부부와 가족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자는 근거이론을 적용한 질적 연구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석·박사과정의 학업과 수련과정을 통해 가족상담 영역에 대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고, 다년간의 가족상담 경험과 다수의 가족과 가족상담사 대상의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참여 하였으며, 질적 연구에 관한 정규 학업과정 이수과 비정규 세미나 참여를 통해 질적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

3. 연구의 질

Yardley(2000)는 질적 연구의 질을 높이고 평가하고 증명하기 위해, 맥락에 대한 민감성(sensitivity to context), 투명성과 일관성(transparency and coherence), 헌신과 엄격함(commitment and rigor), 그리고 연구의 영향과 중요성(impact and importance)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연구맥락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연구자에게 자료를 해석하고 이해하는 틀에 미치는 영향과 연구자와 연구 참가자 간의 관계에 대한 맥락,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맥락등을 고려하였다. 연구과정 전체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자로서 편향을 인식하고 연구문제의 전개, 자료수집 및 분석에 선택된 방법, 삼각화 과정 등을 서술하였다. 일관성은 연구목적과 선택된 연구방법 사이의 적합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탐색하고자 한 본 연구에서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선택하고 이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해석하였다. 연구에 대한 헌신과 엄격성은 해석의 완전성에 반영된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원자료를 확보하고 연구 참여자를 통해 전체적인 의견 및 소감, 그리고 평가 등의 검증과정을 거쳤다. 연구 참여자의 검증을 거친 자료는 동료 가족상담사

들과 가족상담 전공 교수와의 토론을 거쳐 자료로서 분석되었다.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유용성은 질적 연구의 질을 평가하는 또 다른 기준점이다. 연구결과가 사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질적 연구로서 충분한 의의를 갖기 어렵다.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탐색하는 본 연구는 가족상담의 전문직화와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상담영역 내 개인 및 집단상담사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영역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IV. 연구결과

1.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

개인 영역에서 3개, 직업 영역에서 3개, 사회환경 영역에서 3개 총 9개로 분류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개인 영역

(1) 가족상담사에 대한 자기정의

가족상담사는 어떤 사람일까? 또한 전문 가족상담사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과 과정들이 필요할까?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에 입문하고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족상담 경험을 통해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 가족상담사로서 자기정의를 형성해 간다. 전문 가족상담사는 외적으로 대학원 이상의 학력과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슈퍼비전과 개인분석 등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태어나게 된다. 따라서 가족상담에 입문하는 시기에서부터 가족상담사를 직업으로 준비할 것인지 봉사차원에서 활동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과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표 2.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

구분	개인	직업	사회환경
인식	- 가족상담사에 대한 자기정의	- 가족상담의 자기이론화	- 사회적 요구와 기대 - 가족상담직의 현실과 미래전망
태도	- 가족상담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 부여 - 성숙한 관계 맺기	- 직업적 책임감 -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성	- 상담커뮤니티 문화

너무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들어와서 보면 쉽지 않고요. 또 단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이거는. 과연 네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장기적인 거를. 끈질기게 붙들 수 있는 사람이...그만큼 투자할 수 있냐고, 아파트 몇 채를 팔 수 있냐? 그 자리에 아무나 오지 않았거든. 그 정도 할 수 있냐?(참여자 10).

취미생활로 할 건지, 정말 내가 직업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해요. 착각을 한다는 거죠. 마치 취미생활이 직업으로 가는 것처럼.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선수가 돼야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축구하는 게 정말 간절하고, 내가 이것을 해서 내가 어떤 사명감이 있다면 축구를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 맞죠. 직업과 취미를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어서(참여자 4).

가족상담은 개인상담과는 달리 다양한 가족구성원들이, 다양한 가족문제를 갖고, 다양한 해결방법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에게는 개인의 심리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정신병리, 부모교육, 그리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 또한 가족상담에 대한 지식과 기술 외에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 개인과 가족이 제시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연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들은 상담자가 상담도구라는 말처럼 가족상담사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가족상담에 오는 사람들의 위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자녀가 자살했거나 그 다음에 자해하고 온 사람. 폭력, 이 부분이 너무 노출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족치료사는 조금 삶을 산 사람이 더 훨씬 더 유리하겠죠. ‘(가족상담사는) 어린사람들 보다 그래도 연륜이 있는 중년이 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2).

상담자 자체가 좀 성숙한 삶을 살아야지. 나 맨날 그 말하는데. 정말 ‘상담자가 뭐 저래?’ 그런 말 우리가 막 하잖아요. 그니까 자기의 삶도 제대로 못 살고. 자기가 정말 상담자로서 정말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참여자 7).

성숙한 삶의 모습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보다 가족상담사로서 자신의 성격적 특성, 가치관, 규칙과 더불어 핵가족 및 원가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상담의 특성으로 인해 핵가족 역동이나 원가족 내에서 미해결된 문제는 가족상담 현장에서 내담자 혹은 내담자 가족구성원과 전이와 역전이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위해서 가족상담사의 가족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 열쇠가 된다.

내가 ‘안 된다는 게’ 저한테는 많더라고요. 항상 나는 (남에게) 더 주고, 그래야 되는. 엄마가 나한테 투사했던 거를, 내가 계속 담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나쁜 건 다 나한테 주고, 좋은 건 내가 가지면 안돼. 이런 거예요...다른 사람한테 대리적으로 좋은 거를 줘야했던 게 많았던 이유(참여자 5).

맨날 어머니만 보였거든요. 어머니상만 계속 보여 가지고. 어머니하고 나의 관계만 계속...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밀착이 되어서. 돌아가신 지가 20년 가까이 17,8년 되었는데. 어머니와의 관계를 계속, 어머니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건지, 와이프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참여자 14).

저한테는 상담자들 본인 자체부터, ‘내 가정이면 가정, 내 자신이면 자신, 그게 가장 어려운 거지만, 일단 이거부터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집안은 엉망인데. 내 가족은 사이도 안 좋고 그런데. 상담자로서 하는 게, 일단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문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서 상담이 되어야한다 (참여자 13).

대다수 연구 참여자들은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로서 자기정의를 형성해 가는 주요한 도구는 ‘자기성찰’이라고 한다. ‘자기성찰’은 개인과 직업영역에서 자기이해, 자기수용, 그리고 자기신뢰의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과 동료, 슈퍼바이저를 중심으로 하는 지지체계는 가족상담사들에게 이러한 과정을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자 토대이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을 잘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상담자로서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르치고 있는지 혹은 수다를 떨고 있는지 순간순간 성찰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1).

실제적으로 좋은 선생님들한테 교육도 받고 슈퍼비전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버텨내는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내담자하고 적절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조금씩 용기를 얻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3).

그럴 때에 어느 누가 위로 해줘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나의 지도였던, 멘토였던 슈퍼바이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줄 때 굉장히 회복하는 시간도 빨라지고. 왜냐면 나를 지켜봤던 사람이기 때문에(참여자 2).

(2) 가족상담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부여

본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사를 경제적 수입이나 승진 같은 외재적 직업가치관보다는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하는 내재적 직업가치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대다수가 가족상담사를 언급하면서 직업보다는 '천직', '세상을 위한 봉사'와 같은 소명 의식, 또는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거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자기실현'의 증거로 표현하는 데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상담 계기나 동기에 따라 의미와 가치부여는 연구 참여자마다 다르며 직업으로 국한시켜 이해하는 연구 참여자도 있다.

물론 중간 중간에 지칠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 저는 천직이다.'(참여자 2).

솔직히 말씀드리면 늘 힘들어요. 늘 힘들지만 그래도 안 놓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의 봉사고 나한테 종교인 것 같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참여자 10).

지금은 그냥 일. 일 뿐이에요. 재미있기보다는. 임무이고. 일, 일 뿐이에요(참여자 11).

이러한 가족상담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부여는 연구 참여자 개인의 긍정적 가족상담 경험, 가족상담사로서 경험한 가족상담의 효과, 그리고 가족상담사로서 느끼는 유능감 혹은 자기효능감을 통해 강화된다.

기본적인 한사람이 바뀌니까 나에 대해 편하게 하고,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안 좋았는데, 조금 조금씩 순 방향으로 흘러가고. 옆에서 내가 상담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가정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본거죠(참여자 14).

어떤 내담자가 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피드백을 줄 때.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상담자로서 역할을 했구나' 생각을 하는데... 아이가 센터에 와서 저한테 크리스마스카드를 주고 간 거예요. 그거를 한 몇 년 보관했어요. 그때 너무 가슴이 뿌듯해서 '나 이거 계속 해야겠다' 이러했던 적이 있었고(참여자 1).

(3) 성숙한 관계 맺기

연구 참여자들은 교육과 훈련, 그리고 자신의 가족상담 경험을 토대로 가족구성원, 가족상담사,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숙한 관계 맺기를 시도 한다. 성숙한 관계 맺기의 핵심은 명확한 경계선을 갖는 것이다. 가족상담 이론 중 구조적 가족치료는 가족 내 경계선(boundary)을 경직된(rigid), 명확한(clear), 밀착된(enmeshed) 혹은 모호한(diffuse) 형태로 분류하고, 기능적인 가족일수록 명확한 경계선을 갖는다고 한다. 연구 참여자들은 핵가족과 원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위치와 역할, 가족상담 현장에서 내담자와의 관계, 가족상담사로서 역할, 그리고 다양한 사회관계에서 명확한 경계선을 갖고자 노력한다.

전에는 내담자의 이슈가 나의 이슈가 된 적이 있었어요. 생활에서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고. 잘 해주고 싶다는 마음에.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왜 내 생활까지 이게 들어오지 하면서 개인분석도 몇 번 더 받고 또 동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내 생활과 일을 분리하는 분기점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 따로 내 생활 따로(참여자 9).

저는 상담사로서 제일 성공한 게 자녀하고 관계가 성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시너지 효과를 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상담사가 되어

야 할 이유가 저한테 너무 필요한 거예요. 아이하고 관계하고 있어서 상담사로서 자세가 도움이 많이 되어가지고. 우리 아이가 성격적으로 상처받았던 것 회복되고. 원가족 어머니하고도 회복되고 계속 어려움은 있지만(참여자 3).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을 관찰하는 여유... 상담이랑 상담을 통해서 연습이 된, 제 대인 관계가, 제 가치관에 또 가더라고요. 선이 정해지더라고요(참여자 1).

가족상담 교육과 훈련을 통해 대인관계에 명확한 경계선을 갖는 긍정적인 변화도 있지만, 가족상담에 몰입하면서 가족상담 관련 교육이나 훈련과 같은 상담영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거나 상담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들을 하게 되면서 기존 대인관계에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거나 대인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부정적 측면도 있다.

상담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있게 되기도 하고 활동들이 많지 않고. 또 이제 이쪽 상담사나 내담자나 동료들을 만나다보면 예전에 고등학교 친구도. 시간을 많지 않게 되고 대화도 주제도 워낙 좀 달라지기도 하니까. 그런 면에서 영역에 축소되는 경향도 사실은 조금 있거든요(참여자 7).

2) 직업 영역

(1) 직업적 책임감

책임감이란 말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를 중히 여기는 마음이다(한국어기초사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상담을 선택하고 맡겨진 가족상담사 역할은 누군가에 의해 강요되거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고 하고 싶어서 한, 자신의 선택인 것이다. 이들에게 직업적 책임감은 일차적으로 가족상담 영역과 가족상담사라는 직업 선택에 대한 책임감이다. 이러한 책임감은 내담자에 대한 책임감, 가족상담에 대한 책임감을 포함한다.

내 스스로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일어나서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한 사람 하나 없잖아요(참여자 14).

‘만원을 냈으면 만원어치 해줘야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편이라서. 주변에서 ‘너 왜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나?’는 얘기를 하는데. 만원을 받았으면 만원어치를 해줘야하지 않나 싶어요. 내가 돈을 받은 만큼 열심히 해 주는 것도 상담자들 몫이고(참여자 8).

직업적 책임감은 가족상담 관련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자격증이 주는 부담감과 더불어 전문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후배 가족상담사들을 지도하고 선배 상담사로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소속 공동체와 사회영역으로 점차 확대된다.

사실은 1급 따고 더 정신 차려지는 것 같아요. 2급 때 못 느꼈던 긴장감이... 책임감. 학회에서 인정하는 1급 상담사로서, 뭐가 뭐라도 물어보면 한마디 꾸역꾸역 하기는 해야 되겠다. 주인 의식도 생기고 좀 책임감이 많이 생겨요. 어깨가 좀 무겁고(참여자 3).

그거를 저도 고민을 많이 해요. 직원들 포지션을 줘야할 때, 내가 ‘이 친구들한테 직업적인 거 말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된 비전을 줘야 애 네들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참여자 1).

(2) 가족상담의 자기이론화

연구 참여자들이 보고하는 전문 가족상담사는 가족상담 이론에 근거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가족상담 이론에 얽매이기 보다는 자신만의 가족상담 경험과 상담 노하우를 통해 내담자 가족에 맞는 가족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가족상담의 자기이론화는 가족상담 이론과 자신만의 가족상담 경험을 통해 새로운 가족상담 이론을 갖는 것이다. 가족상담의 자기이론화는 다양한 가족상담 이론의 통합, 다양한 영역의 상담 경험, 그리고 창의적인 가족상담 방법의 시도를 통해 형성된다.

이론이 희미하고 자신 없으면, 장님이 이렇게 더듬는 것 같은 것. 했던 게 있으니까 대충 대충 하는데, 확~ 시원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론은 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위 몇도 남위 몇도 이런. 현상학적인 이야기도 들으면서 가야겠지만 아주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좀 ‘자격이 떨어진다.’라는 소리를 듣겠더라고요(참여자 3).

처음에 이 이론도 좋아 보이고 저 이론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잖아요... 보는 것마다 다 꽃밭이라고 표현을 쓰시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몰라서 한 고민이었어요... 모든 이론은 궁극적으로 똑같아요. 다 통해요.... 결국은 그냥 사실은 모든 이론은 다 통하게 되어 있는 거고. 한 가지를 내가 깊이 알아보면 다 같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참여자 7).

예로 부인하고 성관계가 안 된다 했을 때. 한 예로 미음 죽을 싸갖고 와서 그 느낌으로 부드러운 것을 느껴보게 하고, 부드러운 감정을 모르니까 느껴보라고 했을 때... 다양한 미술 매체지만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참여자 12).

(3)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성

일반적으로 전문가는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장기간의 철저한 준비, 노력, 훈련을 통해 최상의 수행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오현석, 2006).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에서든 고도의 능력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학위, 훈련경험, 자격증 등과 같은 외적인 자격이다.

자격증이나 학위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만드는데 그런 거에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죠. 왜냐하면 상담사로서 준비해야하는 자격요건에 그래도 나는 공신력 있는 상담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기본요건을 갖추어가는구나 이런 거에 보람을 느끼겠죠(참여자 12).

외적인 자격과 더불어 가족상담의 사례 수를 늘리고,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바우처 사업, 부모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담에 몰입했던 경험은 전문 가족상담사의 전문성을 형성하는 또 다른 축이다. 또한 가족상담 이론에 얽매이기보다는 내담자 가족에 맞는 상담이론과 상담기법을 적용하면서 자신만의 가족상담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보다 유연한 가족상담을 진행해 간다.

건강지원센터를 3군데를 다 했어요. 한 주에 00 케이스 할 때도 있었어요. 입에서 단내가 난다는 게 뭔지를 알아요. 입에서 단내가 나더라고요. 귀에 이명이 나고... 내담자한테 먹살도 잡혀보고, 저도 상담하면서 트라우마가 막 생길

정도로 했는데...(참여자 3).

바우처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바우처 사업을 하면서 어머 어마한 세상을 만나고 있죠... 사회복지개념의 상담이 되더라고요. 그냥 상담이 아닌, 교육차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담?(참여자 8).

엄마의 의사소통방식이 아이들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엄마가 반드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엄마의 의사소통 방식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나. 원가족 탐색에서 보면 반드시 잡혀요(참여자 11).

옛날에는 이론이나 방법이나 기법에 맞춰서 내담자를 봤는데, 지금은 그거를 하지 않아요. 내담자로서 봐... 내담자를 잘 이해하고 그 내담자의 맞는 기법을 이해한 거하고, 내담자에 맞는 어떠한 치료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참여자 10).

외적인 자격 갖추기와 가족상담 몰입 경험은 셀프슈퍼비전, 슈퍼비전, 그리고 지속적인 학습의 과정을 통해 유지되고 발전된다. 특히 가족상담 입문 초기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학습은 가족상담사들에게는 자기성장의 도구이자 가족상담 전문가가 되는 지렛대 역할을 한다.

상담 끝나고 나면 녹음 한 것도 들어보고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이 때 어떤 개입을 했고 이게 이론으로서 목표랑 대비해서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거든요(참여자 7).

제가 성장 선물이라는 말을 했죠. '진짜 성장 선물이다'라는 걸 슈퍼비전을 하면서. '아! 이거구나.'... 슈퍼비전을 받는다는 거는 성장 선물인데 그리고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많은 걸 지적받는데, 전혀 지적받는다 생각 안 들거든요(참여자 11).

요즘 상담 관련된 공공상담소라든가 이런 관련 사이트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이트를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전문가는 아동학대여도 사회적 이슈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지. 같은 전문가지만 '그들은 어떤 관점으로 보지? 나

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지? 내가 놓친 부분은 뭐지? 저 사람은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는. 어떤 차이점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참여자 12).

3) 사회환경 영역

(1) 사회적 요구와 기대

가족상담은 개인적 고민거리 혹은 집안의 소소한 문제를 들어주던 자원봉사 수준에서, 면담과 사정을 거쳐 체계적인 개입과 문제해결, 그리고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는 전문영역으로 점차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는 가족상담사들에게 전문직으로 지식과 기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학위와 자격증을 요구한다. 더불어 타 전문직과는 달리 가족상담사 개개인의 성격과 인성에 대해 높은 기대치를 갖는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러한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에 대한 과대한 기대나 왜곡된 이미지가 사회에 이미 존재하고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때로는 이러한 과도한 기대나 가족상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들로 인해 가족상담의 목표나 방향을 설정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고 내담자 가족과 이에 대한 갈등을 겪기도 한다고 한다.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재활병동에서 3년 정도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병원에 가서 제가 일 자리를 구해보려고 했는데, 어느 날 종합병원 재활의학과 의사가 저를 보재요. 딱 봤는데, 의사 첫 마디가 라이선스가 뭐냐고 묻더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참여자 13).

일반 사회에서 상담사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은 잘 들어주고, 성격이 엄청 좋을 것이며' 말도 안 되는 판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참여자 3).

예를 들면, 한번 오면 내 우울증이 낫는 거라고 생각해요. 10명중에 1명은 그래요. 근데 친할머니가 저한테 와서 '한방에 끝내주쇼' 그게 기억이 나요. '한 번에 해결해주세요' 라고(참여자 12).

상담과 가족상담에 대한 기대도 많지만 부정적 이미지도 많다.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로 인해 일반인들이 아직까지 상담 혹은 가족상담을 꺼려하고 이로 인해 가족갈등이 심해지는 점들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또한 사회적으로 전문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EBS나 이런 데서는 극한 사람들만 자꾸 보여주다 보니까. 마치 상담실에 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만 와야 되는 사고가 경직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내가 감기처럼 마음이 아프면 와서 상담을 받고 편해지면 그만둘 수 있는 어떤 편안한 곳이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참여자 2).

친구들이'너 뭐 하러 그런 거 하나? 친척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그랬거든요. 얘기를 하면. 돈 들어가고 힘들고 이러니까. 주변에서(참여자 14).

(2) 상담커뮤니티 문화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학회와 소속된 공동체를 통해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상담 커뮤니티의 문화를 습득해 간다. 대개의 경우 대학이나 민간 상담단체와 같은 특정 상담자 집단에 소속되어 인턴과정이나 전문가 훈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담 커뮤니티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장점은 상담공간을 제공받고, 안정적 환경 속에서 상담이론과 상담현장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과 유지를 위한 활동으로 국한시켜 평가하기도 한다.

저희는 인턴쉽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거는,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강의실에서 배운 것이 상담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체득을 한 것 같아요. 강의실에서 배웠던 것이 상담실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그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참여자 4).

어떤 이론은 아니지만 상담사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쓰는 용어도 정해져 있어요. 민간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용어들을 써요.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서(참여자 3).

가족치료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 가기는 했는데. 어쨌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내가 채워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학회에서 가입하면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공부도 하고, (학회 활동에)참석도 해야 하고. 그 자격을 유지하려면(참여자 8).

연구 참여자들은 소속된 학회나 상담커뮤니티를 통해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훈련과 교육, 상담경험을 제공받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한다. 반면 국가공인 자격증이 준비되지 않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개인과 몇몇 단체들을 통해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이 남발되고, 이로 인해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가족상담사들이 증가하는 부정적인 현실에 많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자격증 취득만을 위한 학회가입과 활동을 하는 몇몇 가족상담사를 보면서 자격제도에 대한 허점과 회의감을 갖게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너무 난립된 자격증이 많고,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상담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무슨 전화상담, 00전기상담하는 사람들 비슷하게. (상담사)질을 떨어뜨리고 이래서(참여자 3).

진짜 몇 몇 분들,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있잖아요. 한 교수님한테 열심히 피드백 받고 이런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자격증 이거 받으면 땡. 저는 아닌 것 같아요(참여자 1).

(3) 가족상담직의 현실과 미래전망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족상담이라는 영역에서 가족상담사 역할을 계속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가족상담 입문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고민 중 하나이다. 이러한 고민은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의 훈련과 경험이 요구되고 지속적인 자기성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담하라고 막 내가 추천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거 쉽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한다고 한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기에. 왜냐면 자기를 갖다가 알아차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하고 싶다고 되는 걸까?(참여자 14).

더불어 가족상담만으로 상담소를 운영하거나 경제적인 안정을 얻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비정규직, 낮은 상담료, 열악한 가족상담 환경이라는 측면과 가족상담과 전문 가족상담사에 대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인해 전문직으로 인정과 대우 받지 못하는 측면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상담만 보면, 경영마인드로 보면 그것만 해서 안 돼. 수요도 그만큼 많지가 않아(참여자 10).

전문상담사, 상담실무자, 상담자원봉사자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근데 그게 나눠놨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전문상담사는 그야말로 학위가 있는 사람들 중에 하는 건데. 페이지급을 하계급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담자원봉사자랑 전문상담사랑 똑같이 0천원 받아요. 무슨 전문상담사 대우가 있겠어요? 없죠(참여자 1).

유평센터에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있으면 대우는 받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대우는... 그리고 일선의 00복지기관 그리고 000재단 이런 곳은 힘들겠죠. 왜냐하면 국가공익사업을 하지만 국가에서의 지원이 상황에 따라 약하기도 할 수 있으니까(참여자 12).

가족상담직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 안정성 측면도 불안하다. 개인 상담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들은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로서의 직업 만족감이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미래직업으로서 가족상담사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정적인 가족상담 환경 마련은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가족상담을 지속하기 위한 경제와 정서적 안정을 포함한 생활환경과 더 나아가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한다.

지금 선포하는 의사든 판사는 기계가 할 수 있는 거고, 더 명확하게 잘 할 수 있는 거고 세무사도 그렇고. 인간을 다루는 이쪽은 컴퓨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담 분야도 더 뜰 거다.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뜨는 직업일거다(참여자 5).

보통의 직업 같은 경우는 60세 전후로 다 은퇴를 하잖아요. 상담은 그것보다 더 멀리 할 수 있는 직업적인 장점이 있겠구나. 교수님들은 은퇴하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데. 상담사들은 은퇴를 하고나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 직업적인 이점이 있구나(참여자 12).

적어도 본인이 상담을 하고, 업으로 하고 있다면,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는 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기초수급자 되는 순간, 본인이 그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똑같은 마인드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상담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돕는다는 개념보다는 내 돈벌이가 된다는 이야기죠. 정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정한 수입이 될 수 있는 환경조건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 (참여자 8).

상담이 어떻게 흘러가야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겠... 시스템의 문제 인 것 같아요(참여자 9).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개인, 직업, 사회환경 영역에서 9개의 구성요소가 확인되었다. 개인 영역에서 가족상담사에 대한 자기정의, 가족상담직에 대한 의미와 가치부여, 성숙한 관계 맺기, 직업영역에서 직업적 책임감, 가족상담의 자기이론화,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성, 사회환경 영역에서 사회적 요구와 기대, 상담커뮤니티 문화와 가족상담직의 현실과 미래전망이 도출되었다. 개인, 직업, 사회환경 영역에서 도출된 9개 요소는 인지적 측면과 태도적 측면으로 재분류 되었다.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사회환경이라는 커다란 맥락 속에서 가족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훈련 그리고 가족상담 경험이라는 직업영역과 개인적 특성이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이 내적영역과 대인관계 영역(Gibson et al., 2010b), 혹은 집단영역(Gale & Austin, 2003)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선행연구들과 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선행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사회환경 영역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외국 선행연구의 경우 초급상담자나 석·박사과정 학생(Dollarhide et al., 2013); Gibson et al., 2010b)을 대상으로 한 반면, 본 연구는 학위과정 이후 가족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 가족상담사라는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이러한 차이는 교육이나 훈련과정의 가족상담사들이 개인과 대인관계, 소속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위과정 후 가족상담자들은 근무하는 환경과 사회인식, 상담관련 제도와 법 등이 추가된다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은 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이 고정된 개념이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Reid et al., 2008)하는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은 가족상담사의 환경과 발달단계에 따라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상담자는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을 갖는다. 전문적 자질은 상담이라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의미하며, 인성적 자질은 상담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태도나 품성과 같은 인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적이고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며 양 쪽의 자질을 적절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이재창, 1996). 전문적 자질 즉 전문성의 구성요소는 지식, 경험, 문제해결 능력(Herling, 1998)이다. 본 연구 결과 또한 가족상담 경험과 더불어 가족상담과 관련한 특정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가족상담사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전문직 정체성을 형성하고 발달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참여자들이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성숙한 삶(성숙한 관계 맺기)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취하고 가족상담 이론과 기술, 외적인 자격 등을 통합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가족상담사가 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이를 뒷받침한다.

전문적 자질과 인성적 자질을 갖춘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이야기한 ‘지속적인 학습’은 가족상담사의 전문성의 핵심요소이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지속적인 학습은 ‘삶의 동력’(참여자 1), ‘자기개발’(참여자 15), ‘문제해결 방법’(참여자 14), ‘스트레스 해소’(참여자 11) 등 지식적 측면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Auxier 등(2003)이 보고한 지식적 학습과 경험적 학습을 통합한 개념과 일치한다. 몇몇 가족상담사들은 학위과정을 마치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개인상담을 받거나 슈퍼비전,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전문 가족상담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자 성장의 촉매제임이 틀림없다. 많은 전문직이 회원의 자격유지 조건으로 보수교육을 명문화하고 있는 이유도 이와 동일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가족상담사의 개인적 학습과 교육 및 슈퍼비전은 개인의 특성과 전문직 정체성 발달 수준을 고려한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며, 가족상담 이론, 직업 정보와 같은 지식적 학습 외에 경험적 학습이 병행되어야 한다. 향후 가족상담사 발달과 교육에 있어 전문지식과 학습이 이후 상담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상담교육 과정은 대부분 전문적 자질과 관련된 내용만을 다루고 있고 인성적 자질에 대한 문제는 소

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가족상담사는 인간을 돕는 직업으로서 개인과 가족의 복잡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단순한 상담기술과 상담기법만을 가지고 서는 될 수 없는 직업군이다. 무엇보다 인간에 대한 이해와 철학이 기반이 되는 인성적 자질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 결과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핵심적인 기제로 언급되기도 한 자기성찰은 상담자로서의 태도, 가치관, 윤리적인 이슈 등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상담자 전문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김진숙, 2005; 허재경, 2009)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자기성찰이란 개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하며, 또 그 과정에 많은 요소들이 관여되어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심혜원, 2005). 따라서 가족상담에 입문하는 개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직업을 선택하고, 전문 가족상담사로 성장하기 위한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정체성은 “내적이고, 고정된, 일관성 있는” 개념이기보다는, “외부 세계와 관련된 자아”에 관한 “사회 현상”인 “관계적이고 사회 문화적 현상”(Bucholtz & Hall: Chan에서 재인용, 2014)이다. 즉 정체성은 사회적 관계에 기초한, 구체적 경험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필요성이 있다. 전문직 정체성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다른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상담 전문가로서 사회화되는 것(Gibson et al., 2010b; Puglia, 2008)과 상담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회와 전문가 집단으로서 전문가 집단, 자격위원회, 그리고 공인기관 등이 중요한 요소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상담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 사회와 일반인들은 가족상담에 대한 높은 기대와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 또한 타 직업과 비교하여 가족상담사들에게 높은 인성적 자질과 전문적 자질을 요구한다. 그러나 가족상담과 가족상담사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이미지,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족상담을 포함한 상담영역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식조사와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가족상담에 대한 선입견 완화와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상담이 다양한 형태로 법제화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과 이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가족상담 관련 정책을 운영하고 법과 제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15명의 가족상담사들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 참여자의 학력, 전공여부, 근무여건, 상담환경 등을 통

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의 경험과 설명에 의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가족상담사 모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향후 동질 집단별, 개인상담사 혹은 집단상담사와의 집단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심층면담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이 사적인 영역이나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은 회피하거나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만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였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가 가족상담 영역 다시 만날 수도 있고, 연구자가 가족상담사로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1급 자격을 갖춘 가족상담사를 연구 참여자로 선정 하였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가족상담사나 동일한 자격조건인 가족상담사라도 가족상담사의 발달단계에 따라 그 구성요소는 다를 수 있다. 가족상담사의 발달 단계에 따라 그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본다면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와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는 9가지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들 구성요소의 구체적인 내용, 상관관계, 그리고 9가지 구성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향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나 설문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통해 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타 상담영역과 차별화 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를 탐색하고 구체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가족상담사의 전문직 정체성 구성요소들은 가족상담사들의 전문직 정체성 형성과 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는 데에 개념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족상담사 교육과 슈퍼비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가족상담 관련 법률과 제도 마련을 위한 1차적인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 또 다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곽정임, 서미아 (2015).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부부를 대상으로 한 정서중심 상담 적용연구. *다문화콘텐츠연구*, 18, 157-223.

- 김민규 (2015). 고용센터 직업상담사의 업무환경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전문직 정체성의 매개효과. *HRD 연구(구 인력개발연구)*, 17(3), 23-45.
- 김수지, 정문자 (2010). 가족상담 : 가족상담자의 상담관련 전문성이 부부관계와 가족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11(3), 1289-1304.
- 김유숙 (2002).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제2판)*. 서울: 학지사.
- 김정숙, 유금란 (2010). 전문상담교사의 역할갈등과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1), 53-69.
- 김진숙 (2005). 상담자교육에서 성찰적 실천의 의미와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813-831.
- 노미화, 최연실 (2015). 가족상담사들의 상담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1), 117-141.
-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주요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행 분석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미국결혼가족치료학회. Retrieved from https://www.aamft.org/iCore/Contacts/Sign_In.aspx?ReturnUrl=%2에서 인출.
- 민원홍, 이형섭, 김현민 (2010). 보호관찰관의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지*, 10(2), 189-225.
-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 2000년~2005년에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5(1), 47-74.
- 박종우 (1994). **사회사업가의 전문직업적 정체성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진환 (2008).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연구경향 분석 연구 -창간호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6(2), 1-30.
- 신혜중, 노치영, 김은영 (2005). 한국 가족치료 인력양성의 현황과 과제.동향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205-223.
- 심혜원 (2005). **상담자 발달 및 불안수준에 따른 자기 대화 내용의 차이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자 (2015). 외도로 인한 이혼위기의 부부상담: 사례연구. *가족치료학회지*, 23(1), 55-88.
- 이은경 (2011). 청소년지도자의 소명의식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60, 115-140.
- 오현석 (2006). 전문성 개발과정 및 핵심요소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9(2), 193-216.
- 이재창 (1996). 교육개혁안에 따른 대학교 진로교육 실천 방향. *진로교육연구*, 5(0), 83-108.
- 오현석, 성은모 (2010).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205-223.
- 임성옥, 김현희 (2011). 요양보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의 관계에서 전문직 정체성의 조절효과.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3(3), 151-176.
- 이선훈, 신영화, 서진환 (2005). 한국가족치료의 현상과 인력: 전국기관 조사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1), 79-123.
- 장유진 (2015) 상담의 전문직 정체성에 관한 질적 연구. *연구학습자중심교과 교육연구*, 15(2), 539-568.
- 전영주 (2012). 녹화 슈퍼비전에서 가족치료 훈련생의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0(1), 111-133.
- 전영주, 최연실 (2005). 가족치료에서의 자결제도화: 현황과 과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3(2), 61-87.
- 정문자 (1998). 상담자의 배경과학과 바람직한 특성 조사 : 한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1), 53-78.
- 정지희 (2014). **상담자의 자기효능감, 전문직정체성, 성취목표, 수행수준의 관계**.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은숙, 김민경, 최연실 (2015). 다문화가족상담 인력 양성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다문화가족 대상 상담 업무현황과 종사 인력의 교육 요구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3(1), 89-113.
- 조은희 (2015). 여성상담자의 전문직 정체성.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3), 285-313.
- 허재경 (2009). **성찰 중심 슈퍼비전을 통한 상담자 발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찬, 문성호 (2014). 예비청소년지도사의 전문직 정체성의 특성 및 영향요소. *청소년연구*, 21(1), 343-365.
- 한국어기초사전 <https://krdict.korean.go.kr/mainAction>에서 인출.
- 황선민 (2013). **가족치료수련생의 전문가 되어가는 경험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uxier, C. R., Hughes, F. R., & Kline, W. B. (2003). Identity development in counselors-in-training.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 25-38.
- Becvar, D. S., & Becvar, R. (2016). *가족치료: 체계이론적 통합*(정혜정, 이형실, 윤경자, 이동훈 공역). 서울: 씨그마프레스(2013년 원저발간).
- Bernard, J. M., & Goodyear, R. K. (2013). *상담 슈퍼비전의 기초* (유영권, 방기연 공역). 서울: 씨그마프레스. (2004년 원저 발간).
- Brott, P. E. (2006). Counselor education accountability: Training the effective professional school counselor.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0, 179 -

- 188.
- Brott, P. E., & Myers, J. E. (1999). Development of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identity: A grounded theory.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2, 339 - 348.
- CACREP (2016). Council for Accreditation of Counseling and Related Educational Programs (CACREP) (2016). Standards for accreditation. Alexandria, VA: Author. Retrieved from <http://www.cacrep.org/forprograms/2016-cacrep-standards/>
- Crits-Cristoph, P., & Mintz, J. (1991). Implications of therapist effects for the design and analysis of comparative studies of psychotherap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20-26.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흥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공역). 서울: 학지사. (2007년 원저발간).
- Dollarhide, C. T., Gibson, D. M., & Moss, J. M. (2013).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of counselor education doctoral student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2, 137 - 150.
- Emerson, C. H. (2010).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Measur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 Friedman, D., & Kaslow, N. (1986). Th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identity in psychotherapists: Six stages in the supervision process. *Clinical Supervisor*, 4, 29-49.
- Gale, A. U., & Austin, B. D. (2003). Professionalism's challenges to professional counselors' collectiv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 3-10.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cCallum, L. J. (2010a). Non-tenured, assistant professors as academic division presidents: The new look of leadership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3), 285-292.
- Gibson, D. M., Dollarhide, C. T., & Moss, J. M. (2010b).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new counselor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50, 21-38.
- Gladding, S. T., & Newsome, D. W. (2004). *Community and agency counseling*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Granello, D. H., & Young, M. E. (2011). *Counseling today: Founda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Boston, MA: Pearson.
-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45 - 55.
- (1980). *Attributes of a Profession Revisited*, In Gilbert, N. & Specht, H.(eds.), *The Emergence of Social Welfare and Social Work*(2nd ed), (pp. 255-276). Itasca, IL: F. E. Peacock.
- Hanna, F. J., & Bemak, F. (1997). Quest for identity in the counseling profession.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36, 194-206.
- Hawley, L. D., & Calley, N. G. (2009).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ing: a template for action. *Michigan Journal of Counseling*, 1, 1-12.
- Hearling, R. E. (1998). *Expertise: The Development of an Operational Defini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 R. J. Torrance(Ed.), *Academ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pp. 715-722). Baton Rouge, LA: AHRD.
- Henry, W. P., & Strupp, H. H. (1994). *The therapeutic alliance as interpersonal process*. In A. O. Horvath & L. S. Greenberg (Eds.), *The working alliance: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51-84). New York: Wiley.
- King, N., & Ross, A. (2003). Professional identities and interprofessional relations: Evaluation of collaborative community schemes. *Social Work in Health Care*, 38, 51-72.
- Ibarra, H. (1999). Provisional selves: Experimenting with image and identity in professional adaptation.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44, 764 - 791.
- Lewis, R. E., & Hatch, T. (2008). Cultivating Strengths-Based Professional Identities. *Professional School Counseling*, 12(2), 115-118.
- Lowell, H. L. & Leslie, M. (1995). *Human Relations: Strategies for Success*(4th Edition). Mirror Press.
- Mellin, E. A., Hunt, B., & Nichols, L. M. (2011). Counselor professional identity: Findings and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9, 140 - 147.
- Moss, J. M., Gibson, D. M., & Dollarhide, C. T. (2014).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A grounded theory of transformational tasks of counsel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2(1), 3-12.
- Myers, J. E., Sweeney, T. J., & White, V. E. (2002). Advocacy for counseling and counselors; A professional imperative.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394-402.

- Nelson, K. W., & Jackson, S. A. (2003). Professional counselor identity development: A qualitative study of Hispanic student interns.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43, 2-14.
- Nugent, F. A., & Jones, K. D. (2009). *Introduction to the counseling profession* (5th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 Orlinsky, D. E., Rønnestad, M. H., & Willutzki, U. (2003). *Fifty years of process-outcome research: Continuity and change*. In M. J. Lambert (Ed.), *Bergin and Garfiel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5th ed., pp. 307-390). New York: Wiley
- Ponton, R. F., & Duba, J. D. (2009). The ACA code of ethics: Articulating counseling's professional covenant.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7, 117 - 121.
- Puglia, B. (2008). *The professional identity of counseling students in master's level CACREP accredited programs*(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Old Dominion University, New Orleans.
- Reid, A., Dahlgren, L. O., Petocz, P., & Dahlgren, M. A. (2008). Identity and engagement for professional form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3, 729 - 742.
- Reiner, S. M., Dobmeier, R. A., & Hernandez, T. J. (2013). Perceived impact of professional counselor identity: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2), 174-183.
- Remley, T. P., & Herlihy, B. (2014).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2nd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Merrill Prentice Hall.
- Schön, D. A. (1987). *Educating the reflective practitioner: Toward a new design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rofessions*. San Francisco: Jossey-Bass.
- Strauss, A. L., & Corbin, J. M.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CA: SAGE.
- Wampold, B. E. (2001). *The great psychotherapy debate: Models, methods, and findings*. Mahwah, NJ: Erlbaum.
- Waxman, R. P., Weist, M. D., & Benson, D. M. (1999). Toward collaboration in the growing education-mental health interface. *Clinical Psychology Review*, 19, 239-253.
- Woo, H., & Storlie, C. A., & Baltrinic, E. R. (2016). Perceptions of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from counselor educators in leadership positions. *Counselor Education & Supervision*, 55(4), 278-293.
- Yardley, L. (2000). Dilemmas i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Psychology and Health*, 15, 215-228.

☐ Received: June 30. 2018

☐ Revised: September 9. 2018

☐ Accepted: September 15. 2018